



‘로맨틱코미디 퀴’에 이어 ‘멜로 퀴’에 도전하는 서현진. 각종 드라마 출연 섭외를 받아온 그가 고심 끝에 ‘사랑의 온도’를 택해 가을 감성에 어울리는 진한 사랑 이야기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사진제공 | SBS

“연애한지 한참 됐는데… 달달한 사랑의 대사들, 손발 오그라들때 많았죠”

진한 멜로 도전…SBS 월화 ‘사랑의 온도’ 서현진

서현진(32)은 ‘대기만성’ 스타로 꼽힌다. 2001년 걸그룹 ‘밀크’로 시작해 어느덧 데뷔 17년차를 맞이했지만, 서현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건 불과 2년 전이다. 케 이블채널 tvN ‘식사를 합시다2’에서 ‘낙살 좋은 동네 언니’로 다가오다 지난해 방송한 ‘또 오해영’을 기점으로 만년 조연자리를 박차고 주연으로 우뚝 섰다. 이후 올해 초 SBS 드라마 ‘남만닥터 김사부’(남만닥터)를 통해 지상파 드라마 첫 주연까지 꿰차며 이제는 ‘믿고 보는 연기자’로 통한다. “직업란에 ‘배우’라고 쓴 것도 2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해도, 성실히 길을 걸어온 덕분에 이제는 어딜 가도 ‘꽃길’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도 오롯이 서현진이라는 이름값으로 기대를 모으게 한다. 18일부터 방송하는 SBS 새 월화드라마 ‘사랑의 온도’는 세 편 연속 흥행에 도전하는 작품. ‘남만닥터’ 이후 각종 드라마의 출연 섭외를 받아오던 그가 고르고 또 고른 드라마다.

밝고 톡톡 튀는 매력으로 ‘로맨틱코미디 퀴’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은 그가 이번에는 웃음기를 살짝 빼고 가을 감성에 어울리는 진한 멜로로 돌아왔다. “연애한지 오래 돼 ‘사랑의 온도’가 한참 낮아졌다”는 그가 이 드라마를 통해 자신도 “(사랑의)온도를 높여볼까”한다며 남다른 애착을 드러냈다.

● ‘보통 여자’ 서현진

‘서현진에게는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진다’는 팬들의 반응이 많다. 스타는 그저 바라만 보는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이들에게 더 끌리듯 서현진 역시 그런 신비한 마력을 가졌다. 그동안 출연한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 서현진의 매력도 ‘현실 공감’에서 나온다.

그는 “또래의 평범한 여자들처럼 비슷하다. 나이가 들수록 겁도 많아진다”면서 “일과 사랑, 둘 다 똑 부러지게 완벽하게 해내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서현진은 이번 드라마에서 드라마 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니던 직장에서 뛰쳐나온 이현수 역을 맡았다.

“전작의 (오)해영은 굉장히 융감한 여자였다. 연기하면서 이렇게 융감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 착하기만 한 캐



‘믿고보는 연기자’ 영광의 수식어 동질감 느껴져 많이 응원해주신듯 사랑에 고민할때 만난 ‘사랑의 온도’ 연애해 본 기억 가물가물한데… 내친김에 올가을 사랑해볼까요?

릭터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번 캐릭터는 이것저것 간을 보고 재기도 한다. 마냥 순수하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꼭 나 같아서 안쓰럽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사랑이 하고픈 여자’ 서현진

서현진은 오랜 기간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애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는 게 아니듯 서현진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누구나 하고 있지만 제일 궁금한 게 남의 연애지 않나.(웃음) 작가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드라마를 시작했다고 했다. 최근 6개월간 나에게 질문했던 것도 ‘사람이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였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사랑을 포기한 상태에서 작가를 만났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따뜻한 말 한마디’, ‘상류사회’, ‘닥터스’ 등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인 대사와 섬세한 감정으로 풀어낸 하명희 작가가 자신의 첫 장편소설 ‘착한 스포츠 전화를 받지 않는다’를 각색해 만들었다.

“올 가을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가 조금이라도 열릴길 바라”는 연출자 남건 PD와 하 작가 역시 “이 드라마를 통해 사랑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현진은 “극 초반 간질거리는 대사가 많이 나온다. 손발이 오그라질 때도 있지만, 지금은 ‘연애 해보겠느냐’는 생각이 더 많다”며 “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연말쯤에는 연애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극중 진한 멜로 연기를 맞추는 이는 전작 ‘남만닥터’에서 티격태격했던 양세종이다. 서현진보다 7살 아래다.

“동생이기보다는 ‘남자’로 봐야지 않나. 하하! 처음엔 (양)세종이가 워낙 예의가 바르고 깎듯해 ‘선배님, 선배님’이라고 부른다. 연인 연기를 하기에 불편하기도 하고,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았다. 하지만 대본을 처음 맞춰본 자리에서 딱 3초 만에 ‘남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씨엘, 美 ‘마이 리틀 포니’ OST 참여 ‘블랙리스트’ 오른 김미화, 검찰 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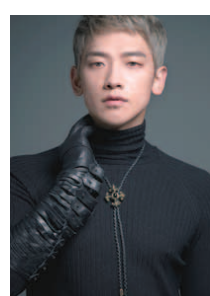
씨엘

씨엘이 10월 6일 미국에서 개봉 예정인 영화 ‘마이 리틀 포니’(My Little Pony)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참여한다. 영화 ‘마이 리틀 포니’는 미국 유명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으로 가족 뮤지컬 코미디 모험 장르다. 씨엘은 이 영화의 11번째 트랙 ‘노 베타 필링’(No Better Feeling)에 참여했다. 미국 음악전문매체 빌보드는 16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운드 트랙 참여는 지난해 첫 오피셜 싱글 ‘리프티드’ 발매 이후 첫 활동이다. 특히 씨엘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심이 담긴 편지를 공개하고 컴백을 약속한 이후 나온 곡이라 더욱 인상적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씨엘이 참여한 ‘마이 리틀 포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노 베타 필링’은 22일 공개될 예정이다.



김미화

이명박 정부 시절 운영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 방송인 김미화가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미화를 19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미화를 비롯해 문화계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방송인 김제동·김구라,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퇴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문성근은 1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문성근은 민·형사 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비

가수 비가 10월부터 연예활동에 나선다. 비는 10월28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 후배가수들의 멘토로 출연한다. 12월 초에는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가수로 돌아온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17일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하기 위해, ‘더 유닛’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초 발표될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은 비의 남성적 색깔이 강조된 힙합곡으로, ‘태양을 피하는 방법’ ‘잊혀 레이닝’보다 더 강렬하고 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비의 이번 앨범은 2014년 6집 ‘레인 이펙트’ 이후 3년 만의 앨범이다. ‘더 유닛’은 약 90여 개 기획사가 참여한다.



라미란

배우 라미란이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6 출연을 확정했다. 2013년 방송한 시즌13부터 ‘막돼먹은 영애씨’에 출연해 5년째다. 라미란은 최근 영화 출연편수가 늘어나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고향’과도 같은 ‘막돼먹은 영애씨’에 갖는 애정으로 이번 시즌에도 출연기로 했다. 라미란은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워킹맘 역을 맡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한편 2007년 4월 방송을 시작한 ‘막돼먹은 영애씨’는 ‘노처녀’ 영애(김현숙)가 직장 과 일상에서 겪는 일을 그려내 시청자의 공감을 얻어왔다. 국내 최장수 시즌 드라마로도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촬영을 시작하는 이번 시즌16은 12월부터 방송한다.



송강호

송강호 주연의 영화 ‘택시운전사’가 유럽 지역에서 열리는 한국영화제에 잇따라 초청돼 해외 관객에 소개된다.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20일 벨기에에서 시작하는 제5회 브뤼셀한국영화제를 비롯해 제6회 프랑크푸르트한국영화제, 제10회 스페인한국영화제, 제12회 파리한국영화제, 제10회 헝가리한국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됐다. 연출을 맡은 장훈 감독은 10월 18일과 10월24일 열리는 프랑크푸르트한국영화제와 파리한국영화제에 참석한다. ‘택시운전사’는 7월 북미에서 열린 제21회 판타지아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상영됐다. 배우 송강호는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쇼박스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해외 관객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